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김현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in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Hyun-Soon Kim
College of Liberal Arts,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33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료를 SPSS 25.0과 Hayes의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유의미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매개했을 때 진로장벽은 진로탄력성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장벽이 직접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 중 성취열망과 진로자립만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고, 자기신뢰, 변화대처, 관계활용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교육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and its sub-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ward this end, 338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and the process macro of Hay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resilience, and the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career resilience and the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Second, the career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means that when career resilience was mediated, career barriers affect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resilience; however, career barrier did not directly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achievement aspiration and career self-reliance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self-confidence, coping with change, and relationship utiliz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career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Career Barrier,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본 논문은 201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n Kim(Dankook Univ.)

email: khsbcr@dankook.ac.kr

Received November 10,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의 Martin School은 컴퓨터 및 자동화로 인해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전문가들 역시 지식 정보 관련 기술의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사회에 나와 갖게 될 일자리의 약 70%가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1]. 이러한 급격한 직업환경의 변화에 더하여 세계적인 저성장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청년층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면서 대학생의 진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직업 세계에 진입해야 하는 대학생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은 진로준비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2].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성숙했다고 해도 실제 준비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이 어려워질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기와 양이 중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할수록 취업 지원 횟수나 면접횟수가 높아져 취업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취업 후 직장 만족도도 높았다[5].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직업 세계로의 진입 과정이 수월하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진로장벽이란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인들'로서, 진로목표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흥미 부족, 동기나 능력의 부족과 같은 개인 내의 특성인 내적 장벽과 재정적 어려움, 가족들의 요구, 취업률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들로 인한 외적 장벽으로 구성된다[5].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진로계획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7],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쳐[5], 진로준비행동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연구되어 왔다[7, 8]. 진로장벽은 취업 의사와 취업이행 그리고 진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낮추

는 요인이었다[9].

위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여 진로준비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연구도 있고[10],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11], 심지어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방해요인이 아닌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Luzzo[12]는 진로장벽과 진로 의사결정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태도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고, 김선중[13]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좌절진로장벽과 극복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성격 문제, 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의 좌절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극복진로장벽으로 구분된 신체적 열등감이나 부모와의 갈등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가 상호 직선적이지 않으며,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14].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매개변인으로서 진로자기조절,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명 의식, 진로탄력성 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7, 15].

이런 변인들 중에서 진로탄력성은 4차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서 최근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16].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은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탄력성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핵심요소로서[17] 진로와 관련된 역경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역경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는 반응 경향성이다[18].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목표 방해, 불확실성, 동료와의 관계 악화 등 일이나 진로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진로탄력성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인지 전략을 촉진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통찰을 끌어내기 때문이다[19]. 따라서 진로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와 관련된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진로준비행동도 더 잘하였다[20].

진로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지연[16]은 선행연구들의 구성요소들을 재정리하여 자기효능감, 진로자립성, 유연성·적용

성, 네트워크·관계 등으로 청소년 진로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제안하였고, 오성배 등[21]은 자기이해, 긍정적 태도, 자기조절, 적응성, 대인·정보관계로 구분하였다. 김미경 [8]은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자기신뢰를 토대로 개인이 세운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망과 이에 대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습득을 통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활용하는 능력 및 태도'로 정의하며 그 하위요인으로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그리고 관계활용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거나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강현희[7]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전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탄력성이 높으면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현경과 유금란[22]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재취업구직자의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탄력성이 반드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고려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대학생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신혜진[23]의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경우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탄력성의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좀 더 면밀히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통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큰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 검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Baron과 Kenny[24]의 방식이 아닌 Preacher와 Hayes[25]의 Process Macro 방식을 사용하여 더 타당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진로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분석한 강남욱과 김장희[26]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진로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낮은 의존성[27] 중 위험감수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로탄력성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성,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8]와 일치함을 지적하면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에 따라 진로탄력성이 진로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과 진로탄력성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척도, 진로탄력성 척도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척도로 구성된 설문은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대학생 370명에게 실시하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3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149명(44%), 여자 189명(56%)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1명(9.2%), 2학년 127명(37.6%), 3학년 97명(28.7%), 4학년 83명(24.6%)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Swanson과 Tokar [14]의 진로장애척도(CBI)를 바탕으로 김은영[29]이 한국 대학생에게 맞게 개발한 한국형 진로탐색장애검사(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개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

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은영[29]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81, 자기명확성 부족 .79, 경제적 어려움 .7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78, 직업정보 부족 .78, 나이문제 .77, 신체적 열등감 .75, 흥미 부족 .71, 미래 불안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다.

2.2.2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8]이 개발한 진로탄력성 척도(Career 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미경[8]의 연구에서 전체는 .93, 하위변인별로는 자기신뢰 .87, 성취열망 .88, 진로자립 .87, 변화대처 .84, 관계활용 .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93, 하위척도별로는 자기신뢰 .90, 성취열망 .84, 진로자립 .89, 변화대처 .74, 관계활용 .83이었다.

2.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태용[3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태용[30]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김봉환[2]의 도구에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정보 탐색'과 '대학 내 진로상담기관 활용'에 대한 2문항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 하위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고

태용[31]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5.0과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 간의 상관과 각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 전체와 각각의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쓰이던 Baron과 Kenny[24]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방법과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의 효과성 검증방법이 통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Preacher와 Hayes [25]가 제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r=-.350, p<.01$) 및 진로탄력성($r=-.658, p<.01$) 그리고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r=-.591\sim-.445,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1	2	3-T	3-1	3-2	3-3	3-4	3-5
1								
2	-.350**							
3	3-T	-.658**	.510**					
	3-1	-.591**	.389**	.862**				
	3-2	-.542**	.498**	.819**	.668**			
	3-3	-.503**	.535**	.813**	.650**	.677**		
	3-4	-.446**	.300**	.683**	.565**	.373**	.427**	
3-5	-.445**	.235**	.665**	.431**	.414**	.369**	.312**	
M	1.98	3.03	3.70	3.75	3.80	3.71	3.19	4.06
SD	.470	.698	.536	.707	.710	.699	.642	.725

**p<.01

1. Career Barrier,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T. Career Resilience, 3-1. Self-confidence, 3-2. Achievement Aspiration, 3-3. Career Self-reliance, 3-4. Coping with Change, 3-5. Relationship Utilization

Table 2.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Route		B	SE	t	p	95% Confidential Interval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LLCI	ULCI
Career Barrier	Career Resilience	-.750	.047	-16.018	.000	-.842	-.658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39	.093	-.422	.673	-.221	.143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641	.081	7.886	.000	.481	.801

Table 3. Analysis of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of Career 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Career Barrier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81	.074	-.632	-.347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탄력성($r=.510, p<.01$) 및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r=.235\sim.535,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매개효과 검증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탄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B=-.750, t=-16.018, p<.001$),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641, t=7.886, p<.001$)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B=-.039, t=-.422, p>.0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장벽이 진로탄력성을 경유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632이고 상한값은 -.347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와 <Table. 3>의 결과를 통해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5개의 하위변인을 동시에 다중매개모형에 투

입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첫째, 자기신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자기신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889, p<.001$), 자기신뢰는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여($B=-.089,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열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성취열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818, p<.001$), 성취열망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B=.258, p<.001$), 진로장벽이 성취열망을 경유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95% 신뢰구간(-.341, -.094)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취열망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자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자립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747, p<.001$), 진로자립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B=.361, p<.001$), 진로장벽이 진로자립을 경유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95% 신뢰구간(-.393, -.155)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로자립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변화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변화대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609, p<.001$), 변화대처는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여($B=.089,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계활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관계활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686, p<.001$), 관계활용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여($B=-.015,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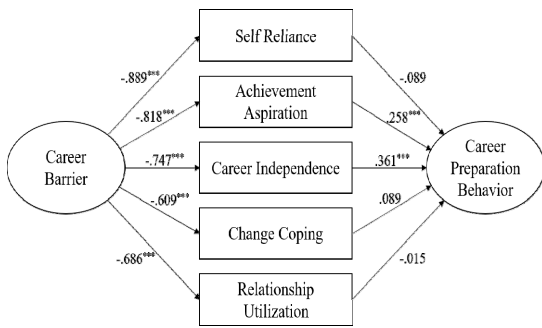


Fig. 1. Mediation Effect Tes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PSS 25.0과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탄력성이 매개했을 때 진로탄력성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장벽이 직접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들[7]과는 다르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들과 일치한다. 조현경과 유금란[22]은 재취업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Oh와 Jun[32]이 실업 상태의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이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연구대상, 연구 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완전매개효과는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특성이 어떠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예기치 않게 발생한 위기상황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적극적인 위기관리능력'인 진로탄력성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진로탄력성 연구가 국외의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는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로탄력성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진로자립모델에서는 진로탄력성을 변화와 경쟁의 환경에서 학습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사회적 능력으로 본다[33]. 진로탄력성은 진로자립의 결과인데, 진로자립이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일을 조직 내외에서 관리하는 능력이므로, 개인은 진로자립적 태도와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진로탄력성을 계발할 수 있다 [33]. 따라서 진로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경험이 중요하므로[19], 진로탄력성을 증진시켜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계 당국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진로 경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각각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다중매개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취열망과 진로자립이라는 두 하위변인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자기신뢰, 변화대처, 관계활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열망이란 개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도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인내와 끈기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8]. 그리고 진로자립이란 개인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능력과 노력을 의미하며, 지속해서 학습하며 새로운 기술과 훈련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시키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8].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교차검토가 어려워 유의미한 하위변인들의 이유와 기제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아직 직업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대처나 관계활용과 같이 실제 직업 현장의 상황을

가정한 변인보다는, 성취열망이나 진로자립과 같이 개인의 의지와 관련된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의미 있게 느껴졌으리라 짐작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좀 더 타당한 방법인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국내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Baron과 Kenny의 방법과 Sobel test인데, 이 연구방법들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34]. Hayes[31]는 Baron과 Kenny[24]가 가정한 것과는 달리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도 그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변인이 예측변인이나 준거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더라도 그 두 변인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 신뢰로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앞으로 더 타당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진로장벽의 경우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11]. 그러나 진로탄력성의 경우 그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는 있었으나[26, 27], 국내의 진로탄력성 연구는 국외의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는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어서[35], 아직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는 진로탄력성을 더 상세히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과 충청도라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만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체계적인 표본 추출방법으로 높은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 각각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여 성취열망과 진로자립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하위 변인 효과의 기제와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S. Cho, "A Study on the Task of Future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Media & Education*, Vol.6, No.2, pp.152-185, Dec. 2016.
- [2]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7.
- [3] M. O. Kim,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1, pp.69-90, Nov. 2012.
- [4] S. G.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1-25, 2008.
- [5] E. R. Sohn, "The Relationship of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Women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2, pp.415-427, 2002.
- [6] J. Green-Blank, "Career development potential of universit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sultation of Vocational Counseling, Ottawa, Ontario, Canada, 1998.
- [7] H. H. Kang, "Effect of Career barrier on Polytechnic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1, pp.59-78, March. 2015.
- [8] M. K. Kim, The Development of Career Resili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4.
- [9] J. H. Kim,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Employment Transition and Intention in the Economically Inactive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9, No.2, pp.1-26, 2019.
- [10] H. K. Ahn, The Influences of Hope,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Korea, 2008.
- [11] J. H. Jo,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2007.
- [12] D. A. Luzz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2, No.4, pp.239-248, 1996.
- [13]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Korea, 2005.
- [14] J. L. Swanson, D. M. Tokar,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8, pp.92-106, 1991.
- [15] M. J. Kim,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89-107, June, 2016.
- [16] J. Y. Lee, "The Direction of Youth Career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ring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Seoul, Korea, pp.65-96, May 2017.
- [17] M. London, E. M. Mone,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1987.
- [18] J. Bimrose, L. Hearne, "Resilience and career adaptability: Qualitative studi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81, pp.338-344, 2012.
- [19] H. S. Yoo, "A Theoretical Review on the Concepts of Career Resili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Adult Career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1, pp.423-439,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1.201302.423>
- [20] J. Y. Kim, K. H. Lee,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1-25, 2014.
- [21] S. B. Oh, H. H. Park, Y. J. Lee, H. B. Kim, E. J. Jang, J. S. Oh, "A Delphi Analysis on the Meaning and Constructs of Youth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15, No.1, pp.89-110, 2020.
- [22] H. K. Cho, K. L. Yu,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Job Seekers for Re-Employ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6, No.6, pp.1-19, 2017.
DOI: <https://doi.org/10.37210/JVER.2017.36.6.173>
- [23] H. J. Shin,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3, No.2, pp.349-373, Aug, 2016.
- [24]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25] K. J. Preacher, A. F. Hayes,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 *Instrument and Computers*, Vol.36, No.7, pp.717-731, 2004.
- [26] N. U. Kang, J. H. Kim, "Study on Research Trend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41, pp.181-208, June, 2016.
DOI: <https://doi.org/10.21582/TJH.2016.06.41.181>
- [27] M. London,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8, pp.620-630, 1983.
- [28] J. H. Sung, The Effects of th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Mater's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 [29] E. Y. Kim,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1, pp.219-240, Feb. 2002.
- [30] T. Y. Ko,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 [31]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3.
- [32] S. K. Oh, J. S. Jun,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 levels, ego-resilience, job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middle-aged unemployed men",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Vol.15, No.1, pp.21-42, 2018.
- [33] B. Collard, J. W. Epperheimer, D. Saign, Career resilience in a changing workplace. Information Series No. 366.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olumbus, Ohio.
- [34] H. E. Lee,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6, No.2, pp.225-249, 2014.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4.16.3.009>
- [35] J. E. Jeong, H. S. Joo, C. Y. Jyung, "A Review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6, No.1, pp.1-20, March, 2013.

김 현 순(Hyun-Soon Kim)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상담이론, 성폭력